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7주】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계신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추위 속에서도 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따스한 햇살은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주님, 냉랭한 세상 속에서 봄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  
게 우리도 그런 희망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 혼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  
십시오. 불필요한 갈등과 거짓에 근거한 비난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주  
십시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국정이 정상화되어서 이 나라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 5:8,9 ..... 인도자

▲ 교 독 문 ..... 80. 고린도후서 4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장원호 권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 다 함께

▲ 성경봉독 ..... 렘 17:5-11 ..... I. 인도자  
II. 권혁순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2부찬양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찬양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구재원 권혁래 김근종 정옥영 김나름 김명순 이교영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혜영A 김혜진 노진래 최형경  
서수진 송인선 양경해 우경환 유지은 윤미경 윤수진 김이광 김수연 이봉옥  
이순용 김신실 이용석 이응석 이은경 이재문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임형욱 장동훈 정은선 장병준 박소현 전아영 전영린 김행자 정다운 홍예선  
정두리 정종삼 정현선 유병선 조미선 최숙희 최원남 김희천 하현일 김광우  
한상경 홍춘숙 최석규 최소라 고인성 최재욱 이수정 허신열 무명1

### 감사헌금

강석남 김영란 김영호 김한나 나현주 박상욱 임서영 박은애 이종혁 방경선  
손숙경 안성호 김희숙 오승아 이상도 이시경 이은혜 임혜진 전은택 정영래  
정학성 김현숙 조영순 차혜심 한상수 남해린 홍예선 정다운 무명16

### 생일감사헌금

백묘현

### 녹색꿈헌금

노진래 최형경 윤정득 정효진 최경미 최석규 무명2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2017년 찬양대원 명단

지휘자 : 강석남

반주자 : 최윤선 유청빈

소프라노: 강상연 서해나 오현정 이경희 최형경 최형주 홍순복

메조 : 김명희 김재영 박성희 송양진

알토 : 김행자 박경선 이고임 정옥영 최성애 홍선희

테너 : 김예준 심해성 안길상 이광섭 이지림 정다운 전영린 조관행 한상익

베이스 : 김근종 김영호 마준혁 박규석 박다니엘 변상철 이광석 이한림

장원호 정종삼 조항범

- 찬양대장 : 정종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희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 말씀 .....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 김기석 목사  
 거동기도 ..... 다 함께  
 2부찬양 .....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다 함께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사십시오. 거짓과 더러움을 버리십시오. 오직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 다함께: 아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은 버리고 진실과 순수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김기석 목사

## 십자가의 길 1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사의 주요한 모순들 중 하나를 상기시킨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진리와 선을 갈망해 왔다. 그러나 진리와 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심한 위협을 느끼고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그를 죽이고 만다.

십자가는 또한 그 구조 자체가 삶에서 대립되는 것들을 보여 주는 모순의 상징이기도 하다. 왼쪽과 오른쪽에 이르는 십자가의 가로대는 우리가 삶의 '수평적인'면에 있는 서로 상충하는 요구들과 의무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삶의 차원을 나타낸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반대와 모순, 긴장과 갈등에 의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또한 평화를 향한 길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두 가로대가 만나는 중심이 그것을 상징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신의 삶이 모순에 의해 찢기고 역설에 삼켜지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은 부활을 소망하고 요나의 표적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교차점은 곧 변화의 장소이다. ...

십자가는 “고통은 여기서 멈춘다”라고 말한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흡수하는 길이며, 파괴적인 충동에서 나온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어 주는 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하는 사랑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십자가와 모순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와 동일한 능력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세상에 우리 마음을 줄 때 우리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그 찢어져서 열린 마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고통이 사랑에 의해 변화될 때에만 진정한 혁명, 즉 우리를 ‘평화로

운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필사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십자가의 길이 종종 자기학대로 오해를 받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은 견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고난이다. 만일 고통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길은 병적인 길일 것이다. 그러나 굶주리고 거처할 곳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수억에 이르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이 병적인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 한 사람의 삶을 파서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통해 영적 치유의 물결이 치유가 필요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영의 물결이 우리를 십자가 너머로 데리고 갈 것이며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으로 기쁨의 길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분이긴 했지만, 또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잃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거짓과 환상의 짐이다. 십자가 죽음의 역설은, 죽음을 궁극적 실재로 보는 환상을 죽인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교차점이 주는 역설은 고통이 환상을 죽여서 진리가 기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절망과 환멸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임박한 부활의 표지임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환상을 잃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환상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때려 부수는 위대한 우상파괴자이시다. 환상 너머에는 우리의 거짓이 죽을 때에만 흩날 볼 수 있는 더 온전한 진리가 있다. 이 고통스러운 모순 한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부활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